

잠언 1:7-33

이 희 학 교수 [목원대학교]

잡언 1:7-33 권면과 경고

1. 형식(Form)

- ① 책 전체에 대한 표제어(1:1)와 서언(1:2-6)이 언급된 이후
1-9장에 대한 (첫 번째 모음집) 서론이 등장

→ 서론은 3개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구분

- | | |
|------------|---------------------------------------|
| a.1:7, 8-9 | 제목과 아들에 대한 훈계
(하나님과 부모가 말하는 형식) |
| b.1:10-19 |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경고
(지혜교사가 말하는 형식) |
| c.1:20-33 | 지혜의 참회설교
(인격화된 지혜가 직접 교훈을 말하는 형식) |

⇒ 세 부분은 각각 통일성을 이루는 단일체이며 서로 다른 형식으로 구성

잡언 1:7-33

② 위 세 부분의 순서는 **의도적**

a.1:7, 8-9의 핵심요지는 하나님 경외

b.1:10-19는 세속적인 삶의 교훈

c.1:20-33의 내용은 다시 하나님 경외(29절)



-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 경외' 주제로 감싸서
'지혜'와 '야웨 종교'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

잡언 1:7-33

2)본문 주석(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7절)

①첫 번째 단락(1:7-9)은 다시 두 부분(7+8-9)으로 구분

a.7절(여호와 경외)

-문장형식상 <표제어>와 같은 역할을 담당

→ (1)동사 없는 명사문장으로 구성(7a)

(2)1-9장의 커다란 잡언 모음집의 마지막 부분인 9:10에 다시
비슷한 문장이 등장하며 쌍을 이룸

잡언 1:7-33

-분명한 편집의도

“여호와 경외”가 1-9장의 처음과 끝에 쌍을 이루어 등장하고 있음을 통해 1-9장의 분명한 편집의도를 알 수 있다.

➡ 지혜의 야웨화, 지혜의 신학화

{ 지혜전승과 야웨종교를 결합시키려는 편집 의도
야웨 경외는 지혜의 시작이며, 전제이며, 요약이다.
야웨와 지혜를 동일시 하고 있음

b.“여호와 경외”사상은 포로 후기 지혜문헌의 기본골격이 됨

→시 111:10; 욥 28:28; 예수시락서 1:14에도 등장

잡언 1:7-33

② “여호와 경외”

- 항상 hwhy 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
- 욥 28:28에서는 주(yn'doa)로 대체되고 있음
- 이것은 의도적: 포로 후기 야웨종교의 우월성에 대한 철저한 신앙고백적 표현
- 최고의 지혜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를 경외하는 자
- ⇒ 세상의 신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야웨를 경외하는 것

잡언 1:7-33

③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신학적 의미: 인간이 세상에서 얻는 어떠한 지혜보다
야웨(신앙) 지혜가 우월하다는 것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2:6)

-지혜전승의 철저한 신학화 작업

➡ <고대 근동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적, 지적 활동의 산물**이다.
학문적 탐구결과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다.

잡언 1:7-33

<이스라엘의 지혜>

-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 분의 선물이다.

-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이며,
인간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보다 뛰어나다.

⇒ 이런 신학화 작업의 배경에는

“人間은 여호와께 종속되어 있으며, 하위에 있다”는
신학사상이 서있음

잡언 1:7-33

→ 욕 28:23-28에서는

↳ 人間的 지혜의 한계성, 허약성, 평이함을 강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하고 있음 : 여호와만이 유일한 지혜의 근원

→ 잠 28:5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 인간의 이성적 지혜로 하나님을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호와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습득의 근본이며,
최고 지름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

➡ 이것이 바로 편집을 통한 신학적 메시지

잡언 1:7-33

<“야웨 경외”(Ila;r.Yi)의 진정한 의미>

-야웨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 **종교적 경건심과 존경심 가득한 순종**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속에는 야웨 신앙으로 동화된 이스라엘의 지혜사상을 읽게 된다.

➡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지식인이 아니라, **신앙과 학문이 아름답게 조화된 신앙적인 지식인, 신앙을 겸비한 학자**이다.

잡언 1:7-33

④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7b절)

a. “미련한 자” (~ymeywia?)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자

-자신의 명철, 지식, 능력을 의지하는 자

-전반절의 의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함

“본문주석” 잡 1:7-33

b. 멸시하다(dd;b')

-노략하다, 약탈하다, 강제로 빼앗다

⇒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사용될 때는 인간성 말살,
왜곡, 약자, 억눌린 자들에 대한 공격의 의미

-본문에서 이 단어는 지혜와 훈계를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고 강제로 적용하고 공격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

잠언 1:7-33

3)본문 주석(8-9절)

8절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

①내 아들이야

a.잠언 교훈을 부모가 아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벨론과 애굽의 지혜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

b.잠언에서도 자주 등장(1:5; 3:11; 5:20; 6:3)
-1-9장 사이에 15번 등장

잠언 1:7-33

c. 특정한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인 대상을
향한 표현

-단순히 **육신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

-**지혜교사와 제자 사이의 관계**도 전제하는 표현

➡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고 칭함(왕하 2:12)

-애굽에서도 지혜교사의 학생은 **“아들”**로 표현(프타호텝의 교훈 198)

-그리고 이 호칭의 반복은 **원래 잠언들이 개별적으로 전승되었음을**
암시(**처음에 항상 “내 아들아”로 시작**)

잡언 1:7-33

d.내 아들 - 네 아비

- 듣는 대상이 항상 2인칭 남성 단수 형태로 소개된다.
- 이 형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스승이 제자에게 전달하는 친밀성을 주는 형식이다.

②8절은 “순종하라”는 권고로 시작

- [m;v. 는 단순히 “듣다”가 아니라, “순종”을 의미
- 이 표현은 특히 신명기에 자주 등장(신 4:1; 6:6)

- {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어라” - laEr"v.yI [m;v.
- 잡언- “내 아들이 들어라” - ynib. [m;v.

잡언 1:7-33

③ "父-훈계/ 母-법(토라)"을 연결시킨 표현은 독특함
(동의어적 평행법)

-잡 4:3; 6:20에서도 父가 먼저 나오고, 母가 후에 등장

-잡 6:20은 1:8과 매우 비슷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좀더 강한 교훈, 규율적인 교훈이 적용 }
어머니: 좀더 부드럽고 지혜로운 교훈이 적용 }

-동사사용: 아버지-명령어(강한 명령) }
어머니-부정명령(부드러운 명령) }

잡언 1:7-33

➡ 그러나 부모 존경의 계명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다.

1) 출 20:12; 신 5:16(십계명)

-“父-母”의 순서

2) 레 19:3

-“母-父”의 순서

3)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M.Noth의 주장에 의하면, 포로기 때 이스라엘의 가족질서와 사회질서가 파괴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의지, 의존할 곳이 없는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특별히 강조한 것

잡언 1:7-33

④관 - 목걸이(9절)

-1)지혜의 가치 2)지혜자가 얻는 명예 상징

-9절은 부모들이 지혜교훈을 따라야 하는 이유

➡ yKi 로 시작

-<관>: 구약에서는 잠 4:9에 한번 만 더 나올 뿐

-“귀금속으로 된 장식 머리띠”를 의미

잡언 1:7-33

-<목걸이>(금사슬)

a.창 41:42이하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를 주면서 “인장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

b.단 5:29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드리우게 한다

⇒<관, 목걸이>

장식품, 보석으로 사회적인 높은 신분과 관련되고 있음

잡언 1:7-33

3) 형식: 10-19절

① 10-19절은 지혜교훈의 한 예로써 제시

- 8-9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예

- 부모의 교훈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

② 15절에서 “내 아들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단어를 통해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어질 수 있음

{	10절	서언(짚막한 서론)
	11-14절	악한자의 유혹의 말이 인용
	15-19절	지혜교사의 대답

잡언 1:7-33

4) 본문 주석

<10절>

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쫓지라도 따르지 말라

① 악한 자(~yaiJ'x:)

-죄인이라는 뜻

-여기서는 종교적, 신학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인, 총체적인 용어로 사용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

잡언 1:7-33

a) C. H. Toy (ICC 1899), W. O. E. Oesterly (1929)

- “악한 자”라는 단어를 11-14절과 밀접히 연관시켜
강도와 살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가만히 옆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11절)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13절)

- 그래서 사회적 질서가 파괴되고, 무법의 시대로
치달았던 페르시아, 헬라 시대를 배경하는 것으로 주장

b)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

- 특정시대를 겨냥한 단어로 해석하지는 않음
→ 모든 사회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 현상

잡언 1:7-33

<11~14절>

- 11)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었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 12) 스올 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 13)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 14)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①범죄자(죄인)들의 유혹의 말씀의 인용

- 지혜교사는 죄인들의 한 극단적 경우를 제시
- 죄인들은 경험 없는 순진한 자들을 꾀어서 무고한 자를 습격하려는 자기들의 음모에 가담시키려 함

잡언 1:7-33

-11-12절: 범죄자의 범행이 점층법적으로 소개

{ 11절 = “피를 흘린다”

12절 = “무덤으로 내려가게 한다”(死)

②번역상의 문제

a.“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11a)

⇒히브리어 직역) “우리가 기다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자”
(죄가 없는 자에게)

b.“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11b)

⇒히브리어 직역)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우리 멋대로, 이유 없이)
죄 없는 자를 매복시키자”

잡언 1:7-33

<11-12절>

a.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자가 행하는 무자비함을 강조

-스올(음부)는 의인화되고 있는데, “통으로 삼키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 있는 자들의 독식을 묘사한다.

b. “스올, 무덤”은 신화적인 배경을 지니고 비유됨(12절)

-살아있는 모든 것을(세력) 삼켜버리는 신적인, 악마적인 세력으로 비유

잡언 1:7-33

③13절 - 악인들의 악행의 목적, 이유

-재물에 대한 욕심: 13절의 동사(al;m' "가득 채우다")가 강조

④14절 - 노략한 재물을 분배하는 모습

-원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제비뽑기(삿 20:9-10; 삼상 10:17이하; 욥 1:7)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바뀜

-“전대 하나”

➡ 동일한 양으로 나누자는 것인데, 모든 재물을 다 합해서 공유하여 뒤탈이 없도록 한다는 뜻이다 - 공동 운명체

잡언 1:7-33

⑤13-14절의 지혜 교훈적 메시지

<재물에 대한 욕심>

a. 경험 없는 자(미숙, 순진)를 향한 최고의 유혹물(미끼)임

b. 범죄자 동료(패거리)들을 묶는 최고의 매개체가 됨

잠언 1:7-33

<15~19절>

15)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6)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17)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18)그들이 가만히 었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9)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잡언 1:7-33

①악행자들의 유혹의 말에 대한 지혜교사의 대답

a.“내 아들이”로 시작되지만, **내용적으로 10-14절과 밀접히 관련**

b.15절

(1)**11a절**(우리와 함께 가자)과 연결되는데,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그 길을 밟지 말라고 경고**

(2)15절은 **10절의 일반적 진술을 구체적으로, 구상적으로 서술**

- ➡ <10절>: 악한 자들을 쫓아가지 말라
<11절>: 현자는 2개의 **동의어적 평행진술**을 통해 **직접적으로 악한 자들의 행위, 조직 가담을 경고**

잡언 1:7-33

②15절에 “길”로 번역된 2개의 단어가 눈에 띄

a. 데렉(%r<d<)

- 구약에 706번 등장,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 장소적, 지리적 의미뿐 아니라, 비유적으로 전이된 의미도
- 소유: 하나님의 법도 혹은 삶의 행위

b. 느티바(hb'ytin.)

- 구약에 26회 등장, 주로 비유적으로 사용
- 人間の 행동양식, 삶의 양식, 삶의 과정



c. 오라흐(x;r;a{)(19절)

- 창 18:11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운율적 본문에만 등장
(잡언, 시편, 욥기) 총 57회

잠언 1:7-33

-위 세 단어는 본문에서 **지리적, 장소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보다는 **상징적, 구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잠언에서 '길'은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1-9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악인의 '길' - 의인의 '길')

➡ "길" = 삶의 태도, 생활 양식

③16절: 15절의 **경고의 두 가지 근거, 이유**를 제공

a.내용적으로는 **11절**과 관련 - 중요단어인 피(~d')가 반복

b.두 가지 이유 : 1)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기 때문**
2)그들은 급하게 **피를 흘리게 하기 때문**

c.히브리어 문장은 이사야 59:7a와 매우 유사

잡언 1:7-33

④17절: 15절과 똑같이 yKi 문장으로 시작되지만 15절을 위한 근거, 이유문장으로 볼 수는 없음

a.17절은 15-16절에 연결하기 보다는 18-19절의 교훈의 결론부분과 연결시켜야 함

-그물: 새를 잡으려는 원시적 도구

b.17절의 의미

-새를 잡으려는 자의 수고하는 헛된 것처럼 악행자들의 음모는 잠깐이며 헛된 것

-혼자서 모르게 그물을 쳤다고 생각하지만 새들은 공중에서 보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악행을 행하지만 그렇지 않다.

잡언 1:7-33

⑤18절

a.11절의 내용과 다시 관련

1)잠복하여 기다림 2)피를 흘린다

→그러나 그 피해의 대상은 악행자 자신으로 역전

b.악행자들의 결과를 제시

-“죽음과 파멸”이 동의어적 평행법으로 기술

잡언 1:7-33

⑥19절

a.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에 대한 진술을 일반화시킴

-“무릇”의 역할은 위에서 거론된 내용을 축약시키며,
확신시키는 역할을 담당

⇒그래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결론으로 일반화시킴

b.“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이 망하는 것은 응보의 법칙

-이것이 <본문의 핵심>

잡언 1:7-33

-결론적으로 <지혜자의 말>은

그 동안 父의 집에서 성장하였다가 이제 곧 사회 (공동체)로 진출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미래를 향한 올바른 삶의 설계, 방향을 제시>

↓
노력 없는 성공, 물질획득을 원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